14-39호 2014.10.15

현안과 과제

고학력 여성의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위한 요건

현대경제연구원

■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

< 요 약 >

■ 여성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'개발'뿐만 아니라 '유지'도 관건

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, 대졸이상 여성 중 34.1%는 미취업상태이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. 또한 대졸이상 여성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. 본 연구는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■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위한 세 가지 요건

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경제활동의 장기적 유지'로 보고, 아래 3가지 단계의 극복 또는 충족을 그 요건으로 보았다.

○ 1단계: 취업장애요인의 극복- **'육아부담'이 최고의 장애물, '제도/문화적 장벽'도 심각**

'육아부담'이 가장 심각한 취업장애요인으로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서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. 한편, 3명 중 1명은 여성에 대한 '제도/문화적 차별'이 아직까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. **고소득일수록 '육아부담'이 커지고, 저소득 및 저연령층은 상대적으로 '제도/문화적 장벽'을 심각하게 인식**하고 있다.

○ 2단계: 일자리 선택요인의 충족– **'수입'과 '안정성'외 '적성흥미'가 상대적으로 중요**

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선택요인으로 '적성흥미'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,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. **배우자가 있는 경우 '수입'의 중요도가 높고, 고연령일수록 '보람자아성취', '장래성'**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.

○ 3단계: 일자리 만족요인의 만족도 제고–**'하는 일', '임금'외 상대적으로 '교육훈련'이 중요**

대졸이상 여성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'하는 일'이며, '교육훈련'은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. '인간관계'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수준이며, '인사관리', '임금', '복리후생', '장래성'의 만족도는 보통(3점) 이하이다. **배우자가 있는 경우(30~40대)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,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서는 모든 만족요인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.**

■ 결론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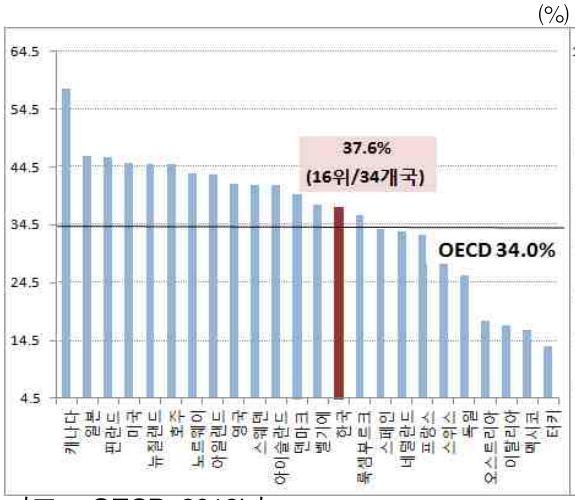
여성 일자리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력, 연령 등에 따라 '일자리 개발'뿐만 아니라 '일자리 유지'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서는 첫째, 고학력 여성의 '육아'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**육아부담 완화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육아병행 프로그램 개발**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. 둘째, '적성흥미'와 일자리의 '안정성', '고소득'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**전문직 일자리의 다양화·세분화**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 셋째, **취업 후 여성 맞춤형 일자리 보수교육 프로그램**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와 교육 욕구 충족을 지향하도록 한다. 넷째, **배우자의 지지에 의한 사회자본**은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, **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결혼의 순기능을 부각**하도록 한다.

1. 논의 배경

○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향상은 일자리 개발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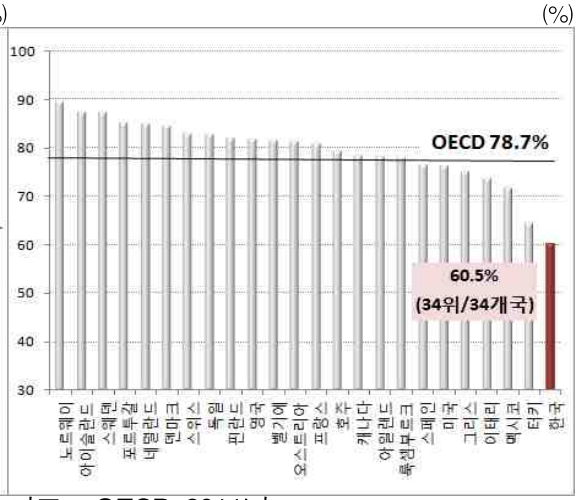
- 여성의 인적자원(대학진학률) 수준에 비해 활용도(고용률)는 취약한 수준임
  - 2011년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, 이는 OECD 국가 34개 국 중 16위로 중위권 수준임
  - 반면 대졸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60.5%로 OECD 평균인 78.4%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임

< OECD국가의 여성의 대학 진학률 >



자료 : OECD 2012년.
주 : 15~64세.

< OECD국가의 대졸이상 여성의 고용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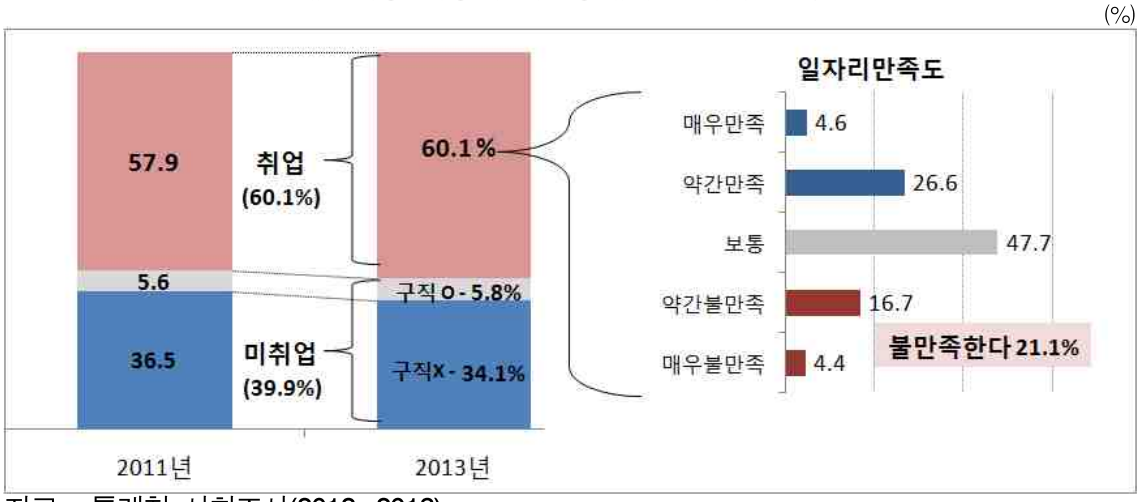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 2011년.
주 : 15~64세.

- 또한 대졸이상 여성 취업자 5명 중 1명은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, 대졸이상 전체 여성 중 34.1%는 미취업상태이면서 구직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
  - 2011년에 비해 2013년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상황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, 아직까지 대졸이상 여성의 39.9%가 미취업자(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) 상태임
  - 대졸이상 여성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5.8%로 매우 미미해 근로의욕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
  - 또한 대졸이상 여성 취업자 중 31.2%만이 일자리에 대해 '만족'하고 있으며, 5명 중 1명(21.1%)은 일자리에 대해 '불만족'하고 있는 상황임

<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상태와 일자리 만족도 >

(%)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2, 2013).

- **본 연구는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'취업장애요인', '일자리 선택요인', '일자리 만족요인'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**
  -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**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경제활동을 장기적으로 유지**하는 것으로 보았음
  -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을 위해서는 첫째, 취업장애요인의 완화(극복)를 통해 경제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, 둘째, 개인이 선호하는 일자리 선택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며, 끝으로, 선택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함
  -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'지속가능한 경제활동'의 요건을 **①취업장애요인의 극복, ②일자리 선택요인의 충족, ③일자리 만족요인의 개선**으로 보고, 각 요인별로 고졸이하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

2.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세 가지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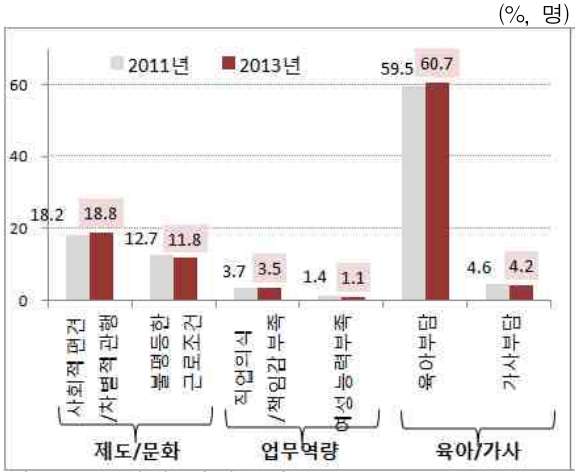
① 1단계: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극복

○ **대졸이상 여성은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'육아부담'이 더 크고, '제도/문화 장벽'도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**

- **취업장애요인(제도/문화, 업무역량, 육아/가사) 중 '육아/가사부담'(62.3%)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, 3명 중 1명은 여성에 대한 '제도적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'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**
  - 최근(2013년) 대졸이상 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취업장애요인은 '육아가사부담'(64.9%)로 전기(2011년)와 유사하며, 특히 '육아부담'은 60.7%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  - 사회적 편견과 차별, 불평등한 근로여건 등 '제도/문화적 장벽'에 대해서는 대졸이상 여성의 30.6%가 취업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인식>

(%, 명)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, 2013).
주 : 사회조사 개요 [별첨] 참고.

<학력별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인식>

(단위: 명)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1 : 모든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주2 : 연도별 고유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2개년도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함.

- **대졸이상 여성이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취업장애요인으로 '육아부담'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**

· 대졸이상 여성 중 '육아/가사부담'의 응답이 62.3%로 고졸이하 여성(46.1%)에 비해 높고, 특히 '육아부담'을 취업장애요인으로 선택한 경우는 58.1%로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무려 12%p나 많음
· '제도/문화적 장벽'을 선택한 경우는 대졸이상(29.7%)과 고졸이하(30.3%)의 경우가 유사함

○ **대졸이상 여성 중 고소득일수록 '육아부담'이 커지고, 저소득 및 저연령층은 상대적으로 '제도/문화적 장벽'을 심각하게 인식**

- **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'육아부담'이 커지고, 상대적으로 저소득 집단은 '제도/문화적 장벽'을 좀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**
  ·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'육아부담'을 취업장애요인으로 선택한 경우가 63.2%로,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(48.2%)에 비해 15%p나 많음
  · 반대로 '제도/문화적 장벽'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

- **연령별로 보면 '육아/가사 부담'은 30대가 가장 높고, '제도/문화적 장벽'는 상대적으로 20대가 많으며, '업무역량'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취업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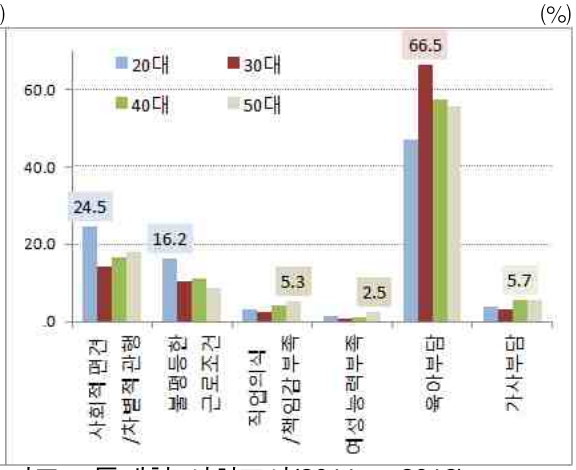
<대졸이상 여성의 가구소득별 취업장애요인>

(%)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 : '책임감부족', '능력부족', '가사부담'을 제외하고 집단간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< 대졸이상 여성의 연령별 취업장애요인 >

(%)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 : 집단간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② 2단계: 일자리 선택요인의 충족

○ 일자리의 '수입'과 '안정성'외에 개인별 '적성흥미'의 중요도 증가 추세

-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선택요인으로 '수입'의 중요도는 다소 하락하고 있는 반면, '적성흥미'의 중요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

· '수입' 및 '안정성'이 중요한 일자리 선택요인으로, '안정성'은 기간별 차이없이 대졸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선택요인으로 보고 있음

· '수입'은 2011년에 비해 2013년 중요도가 3.1%p 하락하였고, '장래성' 및 '명예명성'의 중요도도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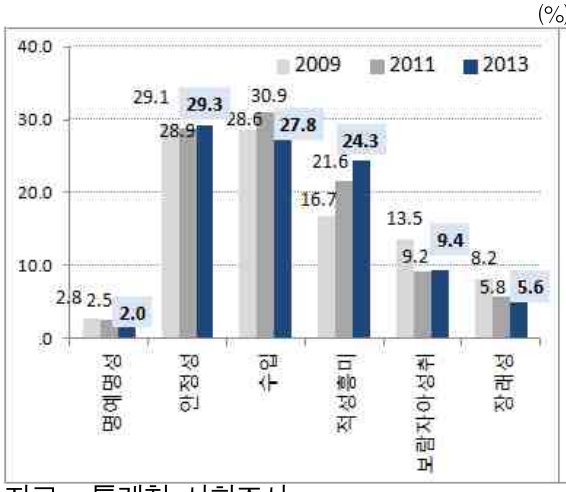
· 한편 '적성흥미'는 2009년 16.7%에서 2013년 24.3%로 7.6%p가 증가하여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

- '적성흥미'는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음

·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선택요인으로 '안정성' 및 '수입'의 중요도는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낮은 반면, '적성흥미'의 중요도는 두 배 이상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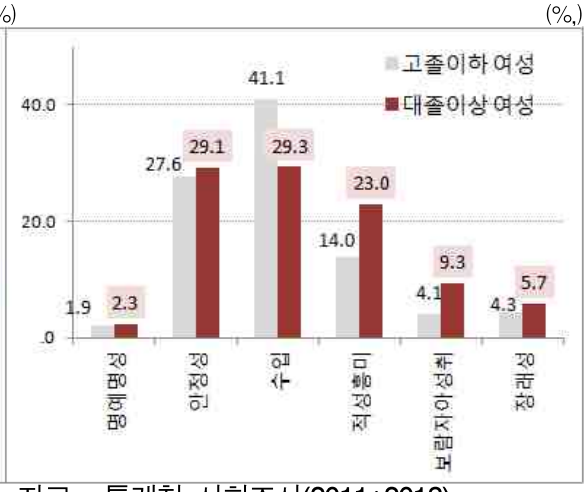
·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 '수입'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택요인이며, '보람자아성취', '적성흥미'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

<연도별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선택요인>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.

< 학력별 여성의 일자리 선택요인 >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+2013).
주 : 집단간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○ **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'수입'의 중요도가 높고, 연령이 많아질수록 '보람자아성취', '장래성'의 중요도가 커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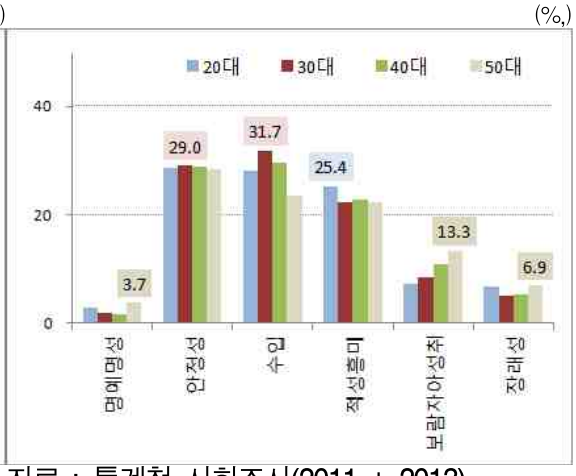
- **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의 일자리 선택요인은 '수입'이며,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'적성흥미', '명예명성'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**
  -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'수입'(30.9%)의 중요도가 높아지는데, 이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활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으로 보임
  -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'적성흥미'(24.9%)의 중요도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높고, '명예명성'에 대한 중요도(3.0%)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전문직 및 관리직의 선호가능성이 커 보임

- **일자리 선택요인으로 '수입'은 30대가 가장 중요시하고, 고연령층은 '보람자아성취', '발전 및 장래성'을 우선시 함**
  - 20대 4명 중 1명은 '적성흥미'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, 생애주기상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30, 40대는 '수입'의 중요도를 높음
  - '보람자아성취'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
< 대졸이상 여성의 배우자유무에 따른 일자리 선택요인 >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.
주 : '안정성', '보람자아성취'를 제외한 집단간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< 대졸이상 여성의 연령별 일자리 선택요인 >

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 : '안정성'을 제외한 집단간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③ 3단계: 일자리 만족요인의 만족도 개선

○ **'하는 일', '임금', '교육훈련'이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만족에 가장 중요하며, '임금', '복리후생', '장래성', '인사관리'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**

- **일자리 만족요인 중 '인간관계', '하는 일'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 수준이며, '임금', '복리후생' 등은 3점 이하로 취약한 수준임**
  - '인간관계', '하는 일', '교육훈련', '근로시간'은 3점(보통)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, 이 중 '인간관계'에 대한 만족도가 3.4점으로 최고 수준임
  - 반면 '임금'(2.71점), '복리후생'(2.74점) 등은 3점 이하로 취약한 상황임

- **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'하는 일'이며, '교육훈련'은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음**
  - '하는 일'에 대한 만족여부가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, 특히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'하는 일'의 상대적인 중요도(베타값)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높음
  - '임금'과 '교육 훈련'의 중요도도 높은 편이며, '인사관리', '인간관계', '복리후생'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

<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만족요인 >

(단위:점/5점)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+2013).
주 : 1점 '매우 불만족' ~ 5점 '매우 만족'의 5점 척도의 평균값임.

< 일자리 만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>

	일자리 만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	
	대졸이상 여성	고졸이하 여성
하는 일	**.16**	.25
인사관리	**.05**	.01#
임금	**.14**	.10
복리후생	**.05**	.03#
장래성	**.09**	.07
인간관계	**.06**	.03#
근로시간	**.10**	.07
교육훈련	**.14**	.09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+2013).
주 : 상대적 중요도는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와 만족요인들간의 회귀분석 결과(베타값)임 (#:p<0.05에서 유의하지 않음).

○ **고졸이하 여성 취업자에 비해 모든 일자리 만족요인의 만족도가 높고, 배우자가 있는 경우(30~40대)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**

- 대졸이상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는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 높음

· 대졸이상 여성은 '하는 일', '인간관계', '교육훈련', '근로시간'에서 고졸이하 여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, 고졸이하 여성과는 특히 '장래성'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

· '인사관리', '임금', '복리후생', '장래성'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보통(3점) 이하로 취약한 수준임

- 배우자가 있는 경우(30~40대[1]))의 일자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

·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 만족요인 중 '하는 일'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, '근로시간'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만족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

· '인사관리', '임금', '복리후생', '장래성'은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3점 이하임

< 학력별 여성의 일자리 만족요인 비교 >

(단위: 점/5점)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 : 집단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
< 대졸이상 여성(30~40대)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일자리 만족요인 비교 >

(단위: 점/5점)

자료 : 통계청 사회조사(2011 + 2013).
주1 : '복리후생'을 제외하고 집단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.
주2 : 30~40대 응답자 중 유배우자 비중 76.4%.

1) 취업 후 일가정양립 여부를 고려하여 30~40대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음.

3. 결론 및 시사점

○ **여성 고용률 향상과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**

- **여성 일자리 정책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여성을 집단화하여 각각 차별화된 접근 필요**
  - 학력은 중요한 인적자원의 차이를 유발하고 일자리에 대한 선호와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적성흥미나 결혼여부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

- **여성 고용률 향상은 '일자리 개발'뿐만 아니라 '일자리 유지'도 관건이라는 인식아래 이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 필요**
  - '육아/가사'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의 폭을 넓혀 일자리 개발, 선택, 유지(일자리 만족)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향하도록 함

○ **고학력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, 육아-경제활동 병행 프로그램 개발, 전문직 일자리의 다양화·세분화, 여성 맞춤형 일자리 보수교육 제도 운영, 결혼(가족)의 순기능 부각 등임**

- **(고학력 여성의 '육아-경제활동 병행 프로그램' 개발) 고학력 여성의 '육아' 패턴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, 육아부담 완화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**
  -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고소득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'육아부담'이 크다는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고학력 여성의 '육아부담'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
  - 고졸이하 여성과 대비하여 대졸이상 여성의 '육아' 패턴의 특징을 이해하고, 특히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임(ex. 공동육아가 가능한 소규모 전문직(디자인, IT) 사업활성화, 육아 맞춤형 재택 사업모델 개발 등)

- **(여성 전문직 일자리의 다양화·세분화로 '적성흥미', '안정성', '고소득' 동시 추구) '적성흥미'와 일자리의 '안정성', '고소득'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대졸이상 여성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의 다양화 및 세분화의 적극 추진**
  - R&D 및 IT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고학력 여성에 적합한 전문직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
  - 기존의 일자리를 내용과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, 고학력 여성이 근로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

- **(여성 맞춤형 일자리 보수교육(補修敎育) 프로그램의 제도적 운영) 취업 전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여성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와 교육 욕구의 충족**
  - 고학력 여성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'교육훈련' 및 '장래성'에 대한 욕구가 커,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발전가능성이 중요시 됨
  - 하지만 현재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취업에 맞추어져 있고, 취업 후 여성 교육은 기업(조직)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음
  - 이에 대한 보완으로 여성에 맞추어진 제도화된 일자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(학교 및 각종 비영리단체 등 민관연계를 통해 다양한 위탁 교육 프로그램(ex. 여성 기업가정신/리더십, 여성 네트워킹, 일가정양립 기술 등) 개발)

- **(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가족의 긍정적 역할 부각)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,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결혼의 순기능 부각**
  - '육아'는 여성의 취업에 있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
  - 하지만 '결혼' 그 자체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일자리 유지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, 배우자는 여성이 근로를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

고승연 연구위원 (2072-6308, yeon@hri.co.kr)

[별첨] 사회조사 개요

- **목　　적:**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.

- **수행기관:** 통계청

- **수행방법:** 1977년부터 시행하였으며, 200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 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표본추출 및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주기를 단축, 조사명칭을 「사회통계조사」에서 「사회조사」로 변경.
  2011년부터 면접조사방법과 인터넷조사 병행.

- **본 보고서내 활용 데이터 개요**

	2013년	2011년	2009년
조사부문	복지, 사회참여, 문화와 여가, 소득과 소비, 노동	복지, 문화와 여가, 소득과 소비, 노동, 사회참여	복지, 문화와 여가, 소득과 소비, 노동, 사회참여 부문
조사기간	2013. 5. 11.~ 5. 26.	2011. 7. 15. ~ 7. 29.	2009. 7. 6. ~7. 20.
조사대상	전국 약 17,664 표본가구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(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 수(MOS)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)	전국 17,112 표본 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원 (약 38,000여명)	전국 약 17,000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37,000명
조사방법	「면접조사방법」 및 「인터넷조사」	「면접조사방법」 및 「인터넷조사」	「면접조사방법」 및 「자기기입식 조사」